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섬의 수도’ 목포시, 한국섬진흥원 유치 확정

행정안전부 공모 9개 지자체 높은 경쟁률 뚫고 선정
 오는 8월 삼학도에 50여 명 조직 규모로 출범 예정

한반도 섬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한국섬진흥원’이 ‘섬의 수도’인 전남 목포에 들어선다.

전남도는 14일 행정안전부의 한국섬진흥원 설립 공모에서 9개 지자체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목포 삼학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 시행을 위해 설립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오는 8월 목포 삼학도에 50여 명 조직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행안부 용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5년 간 생산유발 407억원, 부가가치 274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 한국섬진흥원 설립 방안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고 전남 설립 당위성을 건의해 왔다.

2016년부터 세계 최초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해 2019년 8월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를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 ‘섬 가꾸기 10개년 기본계획(2015~2024년)’을 세워 주민주도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섬 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등 섬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안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전남도의 설립 당위성에 따른 유치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목포시는 서해안과 남해안의 중심이자 섬의 관문이다. 반경 200km 이내에 전국의 79%인 약 2700여 개 섬이 분포하고 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사)한국섬재단, (사)한국섬학회 등 섬 관련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 섬 발전 정책수행이 용이하다는 평가다.

전남도와 도의회, 도내 어촌지역 시장·군수



삼학도 전경

들은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록 지사, 섬 주민들이 직접 ‘전남도민 동행 릴레이’에 참여해 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계기로 섬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과 정주기반을 확충해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며 “특히 섬이 해양 영토를 수호

하는 전초기지 기능을 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를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실어준 목포시민과 200만 전남도민께 감사드리고, 한국섬진흥원에 대한민국의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직장 내 ‘젠더 괴롭힘’ 심각 커피 타기 등 성차별 업무 만연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탕비실 정리나 손님 응대 등 성 역할을 강요받는 성차별적인 ‘젠더 괴롭힘’도 여전하다. 부적절한 호칭, 연애 등 사생활 간섭, 외모 비하, 육아·출산에 대한 비난,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지위의 획득을 방해하는 등의 심각성이 있지만 현행법은 성희롱만 규율할 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에 제재할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씨(25세·여)는 어느 순간부터 팀에서 ‘커피 담당’이 됐다. 같이 일하는 상사가 휴식시간만 되면 A씨에게 “커피를 타 달라”라고 요구했다.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린 층에 속한다는 A씨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못마땅하다”면서 “싫다”, “직접 타드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상사와 얼굴 붉히기 싫어 내색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젠더 괴롭힘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원인은 경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다.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 유리천장지수 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에는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성별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조직일수록,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조직일수록 괴롭힘 피해자 비율이 여성뿐 아니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성 평등한 조직 문화일수록 직장 괴롭힘의 피해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예방과 구제에 있어 한계가 있다. 젠더 괴롭힘이나 장애, 종교, 인종 괴롭힘 사례는 현행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구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국회에 잠들어 있다. 반면,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나섰다.

최윤희기자

순천시, 시골마을에 ‘코로나19’ 순회 이동 검사소 설치

보건소 방문 어려운 마을 노인·장애인·취약층 집중 검사



순천시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시골 마을 순회 임시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한다. (사진=순천시청 제공)

순천시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고 조기 검진을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순회 임시 이동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무증상·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손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임시 순회검사소를 꾸리기로 했다.

시는 13일 주암면에서 가구당 1명 이상 검사하도록 권유해 2개 마을에서 2명의 확진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순회 검사소 설치와 전수 검사를 유도한 성과로 분석된다.

순천시 보건당국은 14일 송광·황전, 외사·월등에서 순회검사소를 운영하고 15일 낙안·상사·승주·서면, 16일은 별량·해룡 등 농어촌 지역을 우선 검사한 후 19일까지 동 지역을 포함해 시 전역에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아, 지금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진단검사에 응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에서는 14일 오전 2명의 확진자(순천 304-305번)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05명으로 늘었다.

조곡동 외과 의원과 의료기기체험판매장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지난 4월 4일 이후 총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4일 양성 관정방은 두 명의 확진자는 막 운영을 시작한 읍면동 순회 임시검사소에서 13일 진단 검사받고 14일 확진됐다.

순천 304번 확진자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지난 4월 8일 기존 확진자와 마을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305번 확진자는 역학 조사 중이다.

순천시방역당국은 읍면동 순회 이동 진단검사소에서 숨어있는 감염자 2명을 발견한 만큼 일상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고 위기의식 속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